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㉔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㉕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㉖제시하였다. 『주제군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㉗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로 선교사인 흠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㉘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㉙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ㄴ.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ㄷ.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ㄹ.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들어오기
- ② ㉡ : 드러내었다
- ③ ㉢ : 퍼뜨리기
- ④ ㉣ : 실린
- ⑤ ㉤ : 가리지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서양의 과학 지식’ → ‘17세기 초부터 유입’

‘서양의 과학 지식’ → ‘지적 충격’ → ‘사상의 변화’

‘서양 의학의 영향력’ → ‘미미’

‘읽었지만’ → ‘극히 제한적’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을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 ‘자신의 생각을 제시’

‘주제군징’

X : ‘대변동’, ‘성과’, ‘기계론적 인체관’

O :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한정된’ → ‘우수성을 인정’ → ‘부분적으로 수용’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 V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

‘이익’ → ‘심주지각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이익 이후’

X : ‘영향’, ‘필요성’, ‘관심’, ‘내용’, ‘충격적’

O : ‘윤리적 문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

‘최한기’ →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 ‘문제(의식)을 본격화’

X : ‘도덕적 차원에 초점’

O : ‘지각적·생리적 기능’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몸기계’ → ‘사용하기에 앞서’ → ‘기계로 파악’ →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 → ‘몸기계로’

X : ‘외부 동력’, ‘기계적 인과관계’

O : ‘그 자체가 생명력’, ‘자발적인 운동’

‘인체를 신기와 결부’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 → ‘꼬리에 꼬리’ →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X : ‘창조주’, ‘질적으로 다른’, ‘기독교적’

O : ‘신기’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최한기’ →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

‘뇌주지각설’ → ‘불충분하다’

X : ‘창조주의 섭리’, ‘기독교적 영혼’  
O :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X : ‘그대로 수용’, ‘심장’  
O : ‘신기의 심’  
‘신기’ →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  
X : ‘인체 기관’  
O : ‘형체가 없이’  
‘두루 돌아다니는’ → ‘유동적인 성질’ → ‘중심이 심’  
‘상황에 따라’ → ‘몰린다’  
‘신기가 균형’ →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신기’ → ‘지각 활동’ → ‘외부 세계의 정보’ → ‘기억으로 저장’  
‘한 몸을 주관’ → ‘하나로 통합’ → ‘감각을 통합’ → ‘지각 내용을 조정’ →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한기’ → ‘접합을 통해’ → ‘새롭게 정립’  
X : ‘결합이 완전’, ‘맹신’  
O : ‘주체적으로 수용’, ‘정합적인 체계’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

17.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살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선지 분리〉

최한기는 /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i. 최한기는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나요?
- ii. 파악했다면 그 시기가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인가요?

〈근거 문장〉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풀이〉

①번 선지는 제가 위에 제시한 지문의 문장과 그대로 내용일치됩니다.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한 뒤에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인체를 기계로 파악하는 기계론적 관점이겠네요. ①번 선지의 경우 위에 제시된 i, ii의 선지 분리 과정을 거친 후, 최한기가 기계론적 관점을 주장했는지 판단한 이후 그 시기가 홉슨의 저서 이전인지 이후인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선지 분리〉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i.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했나요?
- ii. 아담 샬은 심장이 아닌 뇌를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했나요?

<근거 문장>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풀이>

㉒번 선지 역시 지문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 샬의 설명을 접한 뒤 이익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제시된 근거 문장을 통해 아담 샬은 몸과 지각 모두 뇌가 주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익의 경우 지각 활동은 뇌가 아닌 심장이 주관한다고 보는 관점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i, ii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었네요.

- ㉓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선지 분리>

이익과 홉슨은 /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i. 이익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고 주장했나요?
- ii. 홉슨 역시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고 주장했나요?

<근거 문장>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

<풀이>

㉓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내용일치가 되는 지문 속 근거 문장을 찾았다면 쉽게 정오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은 심주지각설을 주장했지만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각 활동만 심장의 몫이라고 본 것이죠. 최한기 역시 이익과 마찬가지로 신체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고 주장하며 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㉔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선지 분리>

아담 샬과 홉슨은 /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i. 아담 샬은 당시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나요?
- ii. 홉슨은 당시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나요?

<근거 문장>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풀이>

㉔번 선지는 선지의 정오를 명확히 판단해서 근거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 3개의 근거 문장을 제시했는데요, 주어진 근거 문장으로 아담 샬이 당시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 즉 조선에 소개하지 않았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홉슨의 경우는 찾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ii도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문장이 지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ii를 빠르게 처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ii와 달리 i은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대놓고 『주제군징』에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다고 서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i의 정오를 확실하게 판단한 뒤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 ㉕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지 분리>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 i. 『주제군징』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었나요?
- ii.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었나요?

<근거 문장>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

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문』의 견해]

<풀이>

④번 선지에 비해 ⑤번 선지는 근거 문장을 찾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⑤번 선지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네요. ⑤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i 은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면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된 지식과 이론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전체신문』의 경우 흡수는 기계론적 관점을 내세우며 운동의 최초 원인을 창조주로 상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근거 문장과 같이 기독교적 영혼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ii 의 정오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17번의 경우, ④번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지문 속 근거 문장을 찾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④번 선지의 ii 인데, 선지의 정오를 엄밀하게 판단하여 문제를 100% 정확하게 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가는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일지 문제에서 시간만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④번 선지의 i 만큼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에, 나머지 선지들이 맞았다는 판단이 들면 망설이지 않고 ④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현장에서 현명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설령 ④번 선지의 ii가 맞더라도, i 은 완전히 틀렸으니 ④번은 옳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근거 문장>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

<풀이>

①번 선지는 대놓고 내용일치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의 조치는 정책으로 치환하여 해석할 수 있고, 서학은 서양 학문과 같은 계열이자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서학을 금지했다는 것은 결국 서양 학문을 배척했다는 뜻이 됩니다.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근거 문장>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풀이>

②번 선지 역시 마찬가지로 i 은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지문 독해에서 이미 자신 있게 내용에 X표시를 했으니까요. 더 설명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근거 문장>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풀이>

우선, ③번 선지와 일치되는 지문의 근거 문장이 없습니다. 당대 의원들, 즉 조선에서 서양 의학을 지적하거나 비판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③번 선지가 틀렸음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는 근거 문장으로 위의 문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다면, 서양 의학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았으니 한계를 지적하지도 않았겠지요?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문장>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풀이>

서양 해부학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제한되었다면 서양의 의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과는 맞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문장>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ㄴ.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ㄷ.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ㄹ.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선지 분리>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 한 몸의 군주가 되어 /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i. 심장은 오장의 하나인가요?
- ii. 심장은 한 몸의 군주가 되나요?
- iii. 지각이 심장에서 나오나요?

<근거 문장>

[대신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풀이>

결론부터 말하면, 심장이기 때문에 ㄱ은 틀린 말이 됩니다. 오답은 발문에서부터 탄생합니다. 발문을 다시 살펴봅시다.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한기’의 견해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최한기는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하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한기는 심주지각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기서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여 피력합니다. 최한기가 말하는 ‘심’이란 심장이 아니라 ‘신기’의 ‘심’입니다. ‘신기’는 인체 기관이 아닌, 어쩌면 추상적인 존재에 더 가까운 최한기만의 개념입니다. 인체 기관이 아니니 당연히 오장의 하나도 아닙니다. ㄱ은 최한기가 아니라 오히려 최한기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종래의 심주지각설에 부합하는 선지입니다. 신기는 인체 기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장의 하나도 아닙니다. 역시 지문에서 근거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ㄴ.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선지 분리>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i.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할 수 있나요?
- ii. 통할 수 있다면,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나요?

<근거 문장>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풀이>

제가 위에 제시한 근거 문장만으로 현장에서 ㄴ선지를 맞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으니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니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 몰린 곳은 우리 몸 중 귀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고,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감각을 하나로 모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귀에 쏠린 신기, 청각과 눈에 쏠린 신기, 시각이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각을 합할 수 있으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감각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ㄷ.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선지 분리>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i.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나요?
- ii. 신기는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나요?

<근거 문장>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

<풀이>

ㄷ선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이고, 실제로도 빠르게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 내용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신체가 생겨날 때 신기도 생겨난다는 뜻인데, 이는 신기가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긴다는 선지의 i 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신기는 스스로 사유하고, 사유하기 때문에 지각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 작용에 적응하며, 작용에 적응하기 때문에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는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한다는 선지의 ii 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 속 근거 문장을 찾아 ㄷ선지의 i 과 ii 모두 판단할 수 있었네요. 여기서의 신기는 당연히 인체 기관인 심장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ㄹ.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선지 분리>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i.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나요?
- ii. 구분되어 있다면,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나요?
- iii. 구분되어 있다면,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나요?

<근거 문장>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

저는 ㄹ선지를 해결할 때 위의 근거 문장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신기가 그 자체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면 신기가 절대 크고 작음 등의 범주로 구분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문에서는 신기가 하나라고 본 것인데,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몸에 퍼지는 신기,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 이런 신기, 저런 신기 이렇게 나눌 이유도 없겠죠? 여기서부터는 사후적 분석인데, 생각해보면 신기를 기능이나 형태에 따라 구분 짓지 않고 그 자체로 통합된 하나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기가 유동적인 성질을 지니며 자유롭게 두루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4개의 선지 중 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ㄱ선지를 읽고 '아 맞다 최한기 심추지각설이었지? 심장 나왔다 내용일지 잘 되네 이 문제~ 허헛' 하면서 ㄱ선지의 정오를 잘못 판단하면 문제를 절대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ㄱ선지에서 '심장'이라는 표현을 보고 인체 기관의 '심장'과 최한기가 고안한,

'신기'의 '심' 모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말이죠. 지문을 제대로 독해했다면, X와 O를 깔끔하게 표시했다면 지문 속 해당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대로 수용', '심장', '그대로 수용'에 X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문 속 근거를 찾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선지는 항상 지문 속 근거를 남긴다는 확신과 함께 정오 판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ㄱ선지를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나머지 선지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데카르트' → '물질과 정신을 구분'  
'물질' → '공간을 차지' V '정신' → '사유'  
'데카르트' → '물질의 기계적 운동'  
'정신' → '두뇌' V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



2019 6월 모의평가 [16-21]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선지 분리>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i.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를 독립적이라고 보았나요?
- ii. 최한기는 신기와 신체가 독립적이라고 보았나요?

<근거 문장>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풀이>

①번 선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판단해야 하는 선지입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기>에서 그대로 내용일치됩니다. 최한기는 어떨까요? 최한기는 신기에 대해 주장하면서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다고 언급합니다. 신기와 신체가 독립적이라면 함께 동시에 생겨나고, 또 함께 동시에 사라지지 않겠조? i, ii를 확실하게 끊었다면 곧바로 ①번 선지가 맞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선지 분리>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i.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두뇌라고 보았나요?
- ii.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두뇌라고 보았나요?

<근거 문장>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

<풀이>

i 부터 봅시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고, 정신은 두뇌에 깃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이 두뇌에 깃들어 있다는 설명은 곧 두뇌에서 정신이 활동함을 의미하고, 이것은 두뇌가

인간의 사고 작용을 주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②번 선지가 틀린 말인 이유는 바로 ii 때문입니다.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두뇌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최한기는 흄슨의 저서를 접한 이후에도 심주지각설을 주장합니다. 다만 전통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몸의 운동은 뇌가, 정신적 지각 활동은 두뇌가 담당한다고 본 것이죠. 최한기는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중요성은 인정했으나, 뇌의 역할을 정신적 사고까지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고 주장합니다.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선지 분리>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i. 데카르트의 정신은 형체를 갖지 않나요?
- ii. 최한기의 신기는 형체를 갖지 않나요?

<근거 문장>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풀이>

③번 선지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데카르트는 형체를 갖는 것은 정신이 아닌 물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에서, 물질과 정신이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에게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없고, 반대로 물질에게는 사유라는 특징이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i는 더 수월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한기의 ‘신기’는 인체 기관이 아니며, 고정된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추상적 존재에 더 가까운 ‘신기’는 유동적으로 우리 몸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죠.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선지 분리>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2019 6월 모의평가 [16-21]

- i.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요?
- ii.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요?

<근거 문장>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풀이>

i 은 해설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정도입니다. 그대로 내용일치됩니다. 인간의 사고는 정신으로 치환되며, 신체는 물질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정신은 사유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신체, 정신은 사고로 치환할 수 있겠죠?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와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하는 데에 무리가 있겠네요. ii 를 봅시다. ④번 선지에서만큼은 최한기와 데카르트가 정반대입니다. 최한기는 '신기'가 한 몸을 주관하고, 또 그 자체로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기'와 인간의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신기'가 온 몸을 돌아다니며 감각을 통합하는데 인간의 사고와 신체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신기'는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합니다. 최한기의 심주지각설에서 우리의 정신, 지각 활동을 담당하는 곳은 뇌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신기의 '심'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비판을 받지만, 최한기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선지 분리>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 i. 데카르트는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 ii. 최한기는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근거 문장>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풀이>

데카르트는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기계적 운동은 흠슨이 주장했던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몸도 물질이니,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 역시 기계적 운동을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운동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요? 즉 운동을 시키는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의 기계론적 운동을 보다 자신 있게 주장하려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여 기계적 운동의 시작을 명확히 한다면 무한 소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네요. 흠슨은 창조주와 같이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선택했고,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데카르트의 경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지에서 묻는 바는 최초 원인이 무엇인지가 아닌 무한 소급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묻고 있기에 i 과 ii 모두 맞는 말로 정오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20번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기> 지문의 독해도 필요하고 선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되는 ②번 선지는 허탈할 정도로 쉽게 정오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②번 선지를 보고 '데카르트를 먼저 판단할까? 아니면 최한기를 먼저 판단할까?' 하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위에 <보기> 지문이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선택하여 판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미 앞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최한기가 이야기하는 신체 운동과 정신적 지각 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한기는 신체는 뇌, 지각은 심장인 심주지각설! 하지만 심장이 아니라 신기의 심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해서 애매한데, 설령 데카르트가 맞았다더라도 최한기는 확실히 아니니까 답은 ②번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번 문제를 풀었다면 제 기준에서는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